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： 미 가구의 재정 부담감은 2022년 이래 최고치
- Ｂloomberg: 미 무역 적자 축소…미 오일 수출이 데이터 장비 수입 상쇄

[금융]
- Bloomberg: 미 국채 시장은 연준 금리 인상 가르킨다
- Bloomberg: JP 모건 “조정이 와도 미 주가 상승한다”

[미국 생활]
- CNBC: 미국인 51%, “아메리칸드림은 그림의 떡”

[이란 전쟁]
- CNBC: 트럼프, “2~3일 뒤면 이란 협상 타결”

[오일]
- CNBC: 미국의 이란 전쟁 완화 발언에 오일 가격 하락
- WSJ: 오일 비축 경쟁이 높은 유가 부추긴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CNBC: 최근 항공업계의 추세는? 수익 급감…수요는 좋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CNBC: Household worries over finances hit highest level since July 2022, New York Fed survey shows
미 가구의 재정 부담감은 2022년 이래 최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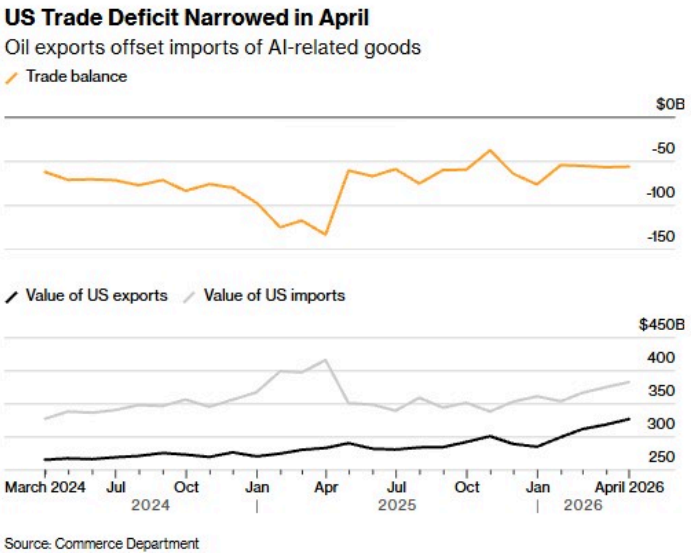
-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.
- 현재 재정 상태가 1년 전보다 '훨씬 악화했다 답한 비율은 13.3%로, 지난 4월보다 약 2.7%포인트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또 뉴욕 연은의 월간 소비자 기대(Consumer Expectations) 조사 결과, 인플레 망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체감도는 나빠졌다. 1년 전보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총 43.7%에 달해,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.

기사

Bloomberg: US Trade Gap Narrows as Oil Exports Offset AI-Driven Imports
미 무역 적자 축소…미 오일 수출이 데이터 장비 수입 상쇄

- 미국의 4월 무역적자가 축소됐다.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, 원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이를 상

쇄했기 때문이다.
- 수출 규모 액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. 원유 수출 급증과 더불어 연료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을 끌어올렸다.
- 주요 교역국별 상품 무역 적자 추이는 엇갈렸다. 멕시코, 캐나다, 중국과의 적자 폭은 줄어든 반면, 베트남으로부터의 적자는 늘어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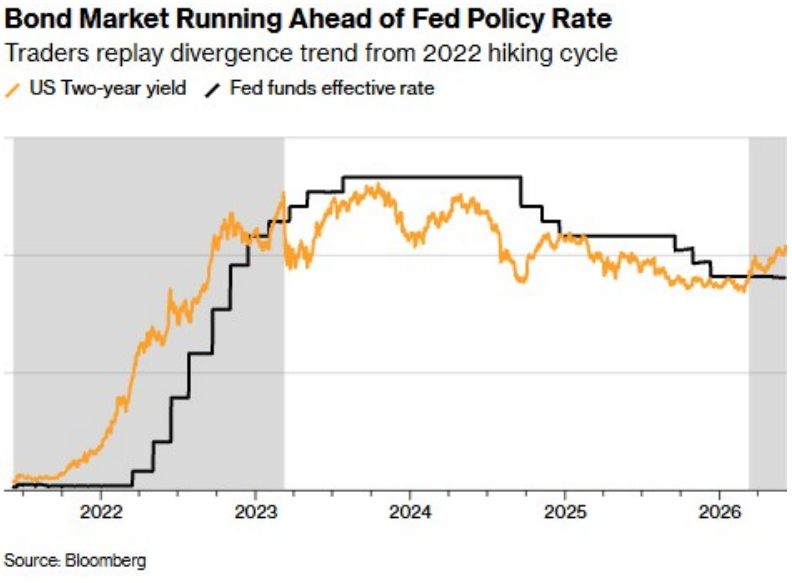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금융]

Bloomberg: Treasury Market Is Telling Kevin Warsh Rates Need to Be Higher
미 국채 시장은 연준 금리 인상 가르킨다

-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연준의 현 정책 금리 위쪽 부분을 넘어섰다.
- 금리 상승세가 장·단기물 전체 국채 수익률로 확산되면서,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을 비롯한 연준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.
- 현재 시장이 추산하는 실질 중립 금리는 약 1.8%로, 연준 위원들의 중간 전망치인 1.1%를 크게 웃돌고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 JPMorgan Sees Stocks Powering Through Any Short, Sharp Pullbacks
JP 모건 “조정이 와도 미 주가 상승한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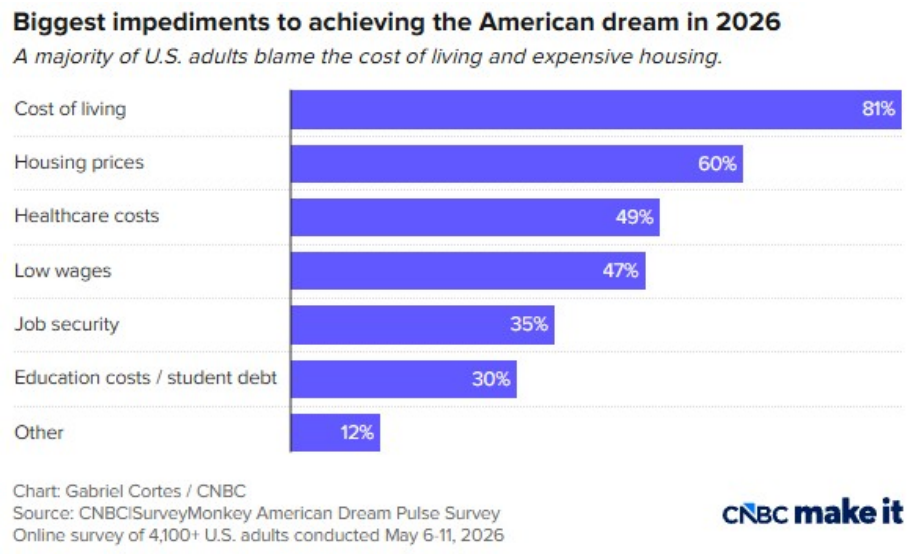
- JP모건 자산운용에 따르면,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시장 심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아직 더 달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.
- JP 모건은 기업 이익이 2026년에 22% 이상 성장할 궤도에 올랐고, 2027년에도 비슷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.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철저히 '실적이 이끄는 장세'라는 것.
- 투자 심리가 약간 과열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, VIX(변동성지수)나 신용 스프레드 같은 지표들을 보면 "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분석했다.

기사

[미국 생활]

CNBC: 51% of U.S. adults say the American Dream is out of reach for most people right now: CNBC survey
미국인 51%, “아메리칸 드림은 그림의 떡”

-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'아메리칸 드림'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CNBC가 성인 4,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45%는 아메리칸 드림이 '일부에게만 가능하다'고 답했으며, 6%는 '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'고 답했다.
- 1930년대 역사학자 제임스 아담스가 제창한 아메리칸 드림은 본래 '계층 불문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'을 뜻했으나, 최근 수십 년간 이에 대한 낙관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.



기사

[이란 전쟁]

CNBC: Trump repeats claims that Iran deal is only ‘days’ away, despite recent strikes
트럼프, “2~3일 뒤면 이란 협상 타결”

- 트럼프가 오늘 화요일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협상이 "2~3일 내로"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미국과 이란이 현재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으며, "핵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매우 훌륭한 합의가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-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인 월요일, "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"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fall as Trump tries to convince market an Iran deal is close despite recent violence
미국의 이란 전쟁 완화 발언에 오일 가격 하락

-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후 국제 유가가 4% 가까이 급락했다.
- 트럼프도 오늘 화요일, 이란과의 협상이 "2~3일 내로" 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. 아직 양측의 결과물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.
- 한편, 이번 주 초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4월 발효된 취약한 휴전 협정이 위태로워졌었다.

기사

WSJ: A Rush to Stockpile Oil Will Keep Prices Higher for Longer
오일 비축 경쟁이 높은 유가 부추긴다

-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일반인의 ‘생필품 사재기’와 같이 미래 에너지 충격에 대비해 비축량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- 각국 정부가 계획대로 석유 비축량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면, 향후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국제 유가는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.
- 현재도 취약한 휴전 협정을 위협하는 최근의 미국과 이란 교전 재개로 인해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BC: 5 takeaways from airline CEOs’ biggest annual gathering
최근 항공업계의 추세는? 수익 급감…수요는 좋다

- 이번 주 브라질에서 국제항공협회 연례 모임을 가졌는데 관계자들이 항공업체의 추세에 대해 논의했다. 이번 총회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봉쇄로 인한 연료비 폭등으로 항공사 순이익이 반토막 날 위기라는 것.
- 그러나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버텨주고 있고 비행기 공급 부족 속에서 주문은 늘고 있다.

- 특히 고유가에 스피릿 등 저가 항공사들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. 반면에 현금 동원력이 있는 대형 항공사들은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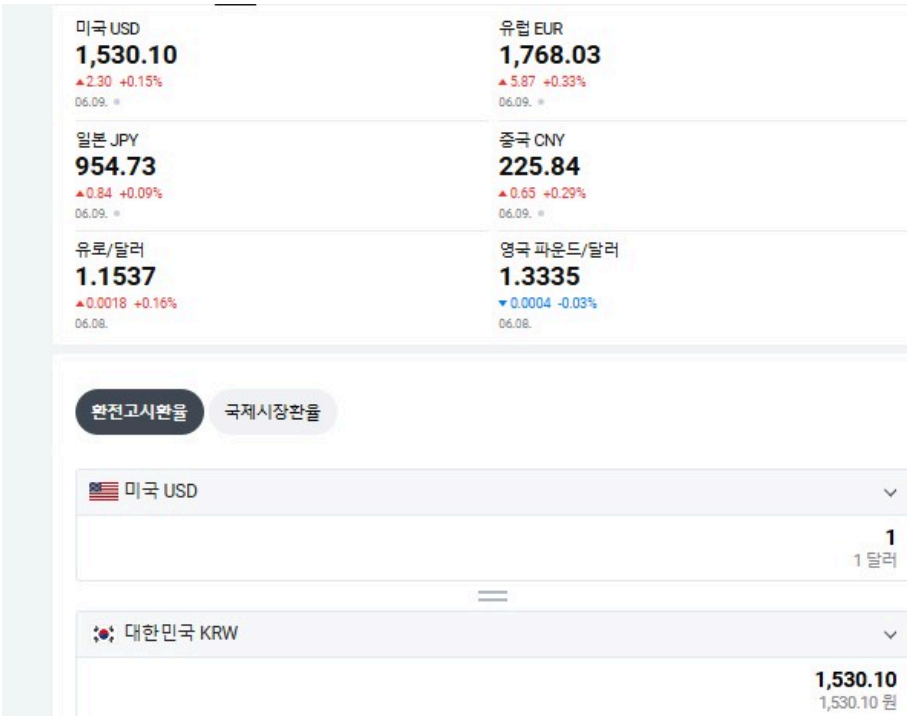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0,555.40	-230.1	-0.45%
US 500	7,331.40	-74.2	-1.00%
Dow Jones	50,565.51	-220.50	-0.43%
S&P 500	7,333.26	-72.47	-0.98%
Nasdaq	25,498.91	-430.75	-1.66%
S&P 500 VIX	20.23	+1.31	+6.92%
Dollar Index	99.862	-0.162	-0.16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3/32	5.022	-0.017
10-Year Note	4.375	2/32	4.542	-0.026
7-Year Note	4.25	23/32	4.402	-0.027
5-Year Note	4.125	1/32	4.268	-0.029
3-Year Note	3.875	1/32	4.190	-0.033
2-Year Note	4	0/32	4.139	-0.027
1-Year Bill	0	0/32	3.806	-0.006
6-Month Bill	0	0/32	3.812	0.007
3-Month Bill	0	0/32	3.709	-0.009
1-Month Bill	0	0/32	3.670	-0.00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